

ILO, 일자리 및 사회보장에 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

ILO, 2010 년 11 월 12 일

Press Release

SEOUL (ILO News) –더딘 고용 회복에 관한 우려가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IL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는 G20 정상들이 사회보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경제회복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G20 정상들은 회담이 끝나고 채택한 선언에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정책의 중심에 두며, 사회보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또 저소득국가들에서 성장이 가속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각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이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협조행동을 취하기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선언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전세계경제회복 프로그램의 핵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G20 정상들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 ILO는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G20 정상회담에 참가중인 소마비아 총장은 말했다.

“통화 및 금융시스템의 조정만으로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세계경제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는 실물경제에서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제창된 “함께 나누는 성장(shared growth)”에 주목하면서,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이러한 접근은 국가들 내부에서 성장의 과실이 널리 공유되는데, 나아가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임금이 생산성과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G20 정상들에 의해 채택된 “함께 나누는 발전전략에 관한 서울 합의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저는 투자, 일자리 그리고 사회보장을 중심에 둔 발전에 관한 G20

의 접근을 환영합니다”고 하면서, 그는 “G20 정상들이 사회보장이 보다 높은 생산성 및 견실한 성장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ILO의 양질의 일자리 전략 (decent work agenda) 과 세계일자리협약 (global jobs pact)이 균형잡힌 성장과 발전에 관한 G20 접근의 중심축에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틀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심화시키는데 있어서, G2 정상들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각국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취할 것 등을 담은 서울행동선언을 채택했다. 서울행동선언은 G20 국가들이 국가별로 한

그리고 G20 정상들은 무역과 고용정책에 관한 일관된 접근을 요구하는 OECD, ILO, World Bank 그리고 WTO의 공동보고서를 검토하였다.

G20 정상들은 서울선언에서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비즈니스 정상회담이 기여한 것에 주목하는 한편, 앞으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보다 폭 넓게 협의해가기로 결정하였다.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G20 정상회담 직전에 세계노동조합 지도자들¹이 빠른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개입을 요구한 효과적인 노력들이 가져온 성과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In Seoul.
Sophy Fisher
ILO Asia Pacific Regional Information Officer
Mobile: +82 10 5784 0254
Coex-Intercontinental Seoul : + 82 23452 2500 Room 1476
fisher@ilo.org

In Geneva
ILO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Tel: + 4122 799 7912
communication@ilo.org

¹ 세계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국제노련, OECD 노조자문회의 (TUAC), 세계산별 노련 (global unions) 및 한국 노동조합이 마련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었다.